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황지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아동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 수준과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영향의 정도를 밝히고, 그러한 결과를 근거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학년, 고정관념과 편견, 접촉경험, 다문화적 교사태도로 나타났으며, 성별, 생활수준,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민족 정체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결론에서는 다문화 가정아동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주요어 다문화 가정아동, 사회적거리감, 사회적거리감 영향요인

1. 연구목적

오늘날 한국사회는 경제성장,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국내 총 체류외국인은 1,066,291명으로, 2006년 910,149명보다 17.2% 증가하였으며, 이는 남한 인구의 약 2% 정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국내 총 체류외국인 중 502,082명(47.1%)이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이고, 결혼이민자가 110,362명(10.4%)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61,029명(5.7%),

*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사회복지학, time46@hanmail.net

기타가 36.8%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표적인 유형은 국제결혼 이주자, 이주 노동자이며 이들의 자녀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18,769명으로 2005년 6,121명보다 3배 넘게 증가하였다. 이들 중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85.4%(16,037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약 84.2%가 초등학생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취학 전 아동이 전체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가장 많으며, 향후 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취학자녀의 수는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설동훈 외, 2005).

2008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노동자가정 자녀는 초등학생이 981명, 중학생이 314명, 고등학생이 107명으로 총 1,402명으로 전년도 1,209명보다 16.0% 증가하였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 중 약 70%가 초등학생으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불법체류의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경우, 재학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유난영, 2008).

이처럼 한국사회는 종전의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존재하는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제결혼이주 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아직은 미흡하지만 새로운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운동 등 그들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학교 부적응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그들의 2세대인 다문화 가정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내면화된 편견과 차별행동은 어린 나이부터 학습되고 이를 없애는 것도 단기간 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시민교육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편견과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자녀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과 향후 초등학교로 진학 하게 될 미취학 아동의 수가 많다.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다른 사람의 태도와 감정에 민감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부모·가족 다음으로 또래가 자신에 대해 갖는 평가와 반응에 대해 민감하고 영향을 받는다(윤혜미 외, 2005). 이러한 점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제외한 첫 사회적 경험을 하는 초등학교에서의 또래와 교사의 태도 및 행동이 아동의 자아를 형성하고 인간관을 확립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크다(장인협, 오정수, 2003). 아동기의 경험은 이후 청소년기의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 성인기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첫 사회경험을 하게 될 초등학교의 일반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아동에 대하여 갖는 사회적 거리감의 수준을 조사하고, 이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밝혀질 영향요인들과 그 영향의 정도는 일반아동들의 다문화 가정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그 결과 학교환경에서 다문화 가정아동들과 일반아동 간의 긍정적인 사회경험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개인을 교육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 정의

1) 다문화 가정아동 개념 정의

다문화 가정을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둘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모든 가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 의미로 본다면 일반 가정 역시 부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다른 생활양식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문

화 가정을 한국인과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또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이룬 가정으로 그 의미를 좀 더 한정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국제결혼 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북한이탈주민 가정도 다문화 가정으로 포함시켜 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국제결혼 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이 가장 보편적인 다문화 가정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의 유형을 이 두 가지로 제한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성장하고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를 지칭한다.

2) 다문화 가정 아동(자녀) 적응 관련 연구

종전에는 다문화 가정자녀보다는 이들의 부모세대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국제결혼가정에서 자녀가 생기고, 장기 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들의 학교생활 및 심리·사회적응에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로써 그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다.

다문화 가정자녀들의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문화 가정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 교사, 또래 등의 사회적 지지, 특히 그 중에서도 또래의 수용이나, 또래 지지와 같은 또래 관계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유미, 2008; 신효선, 2008; 양순미, 2007; 이영주, 2007; 홍정미, 2008). 그러나,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탈학교’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원희목(2008)에 따르면 학령기 다문화 가정 아동 24,867명 중 6,089명(24.5%)이 정규교육권 밖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일반 가정 학생

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미취학률이 0.7%로 나타나 거의 모든 아동이 취학하고 있으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초등학교 미취학률이 15.4%로 일반 가정의 초등학교생의 미취학률 보다 22배나 높게 나타나 그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다문화 가정자녀들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일반 가정 자녀보다 높은 미취학률을 나타냈으며 그 비율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탈 학교율’이 높은 이유로는 가족 내의 적절한 보호 및 다문화 가정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탈 학교율 추정 표는 초등학교 입학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학해야 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상급 학교로 갈 수록 다문화 가정 아동 미취학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학 하였지만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특정한 부정적 요인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희목(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이 ‘탈 학교율’이 높은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설동훈 등(2005)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17.6%가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의 경험이 있으며, 따돌림의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어서’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일반 초등학교생도 13.4%가 집단따돌림 경험(교육개발원, 2005; 교육인적자원부, 2006 재인용)이 있지만, 일반 초등학교생들이 따돌림 당하는 이유가 ‘잘난 척(29.4%)’인 것과 달리 따돌림의 가장

표 1. 일반가정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탈 학교율’ 추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가정 학생 미취학률	0.7	4	8.7
다문화 가정 아동 미취학률	15.4	39.7	69.6
한국학생대비 다문화 가정 아동 미취학 비율	22배	9.9배	8배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7)-‘교육통계분석 자료집’, 행정안전부(2008)-‘외국인주민실태조사 결과’, 원희목 의원실(2008) 재구성

※ 취학률=(취학 적령의 재적학생수/ 취학적령인구)×100

표 2.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비율(%)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

자료: 설동훈 외(2005)

큰 이유가 개인적 특성과는 무관한 단순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 특징적이다(조영달, 2006).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원인이 되는 집단 따돌림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도 경험하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홍정미(2008)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또래들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집단 따돌림을 받으며 그 결과로 그들의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며, 정체감 형성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경숙 등(2007)은 경기도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국생활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차별 및 따돌림을 경험하는 비율은 16% 정도이며, 차별과 따돌림의 경험은 초등학생(20.2%)이 중학생(11.1%)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 학교를 그만 두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이유로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은 ‘놀림을 받기 때문에’가 32.5%로 가장 높았다. 놀림·차별 및 따돌림의 이유로는 역시 ‘엄마 혹은 아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와 ‘특별한 이유 없이’가 62.3%를 차지하여 개인 성격 특성이 아닌 다문화 가정 자녀이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가지는 어려움은 대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발생하며 그로 인한 부정적 경험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 하는 비율과 실제 학업 중단 비율을 높이는 등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개입 없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많은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자녀의 학교적응 혹은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자녀들이 적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입전략을 세우는데 기초가 될 만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사회적 거리감 개념 정의

사회적 거리감 영향 요인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기 전,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거리감 변수의 개념을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감이란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의 정도나 주관적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을 쉽고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이다(송관재 외, 2001). 박수미 외(2004)는 사회적 거리감은 넓게는 인지, 감정,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좁게는 행동적 차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사회적 거리감은 '수용 가능한 사회적 접촉의 범위(행동의사)'로 측정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감 척도들은 공통적으로 행위자의 선택이나 행위 여부에 관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태도의 3요소 중 행동적 요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태도·편견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측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상호 전이될 가능성이 높지만(이하령, 2007), 생각과 감정이 반드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김다영, 2008). 즉, 어떤 집단에 대해 고정관념이 높거나, 부정적 감정이 많다고 반드시 차별적 행위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고정관념과 부정적 감정이 많다고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차별적 행위를 통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게 차별을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상대방은 그 표현된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 또한 일반 아동들의 고정관념과 부정적 감정이 행동으로 표현

되어질 때,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거나 차별을 경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동적 요소를 측정하는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행동의사를 살펴보고, 부정적인 행동의사(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경우)가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지 알아보려고 한다.

4) 사회적 거리감 영향 요인 관련 연구

지금까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관련 선행연구로는 장애인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인종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노숙인, 성적소수자 등) 전체를 포괄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연구한 것이 있다. 또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자녀에 대한 일반청소년의 편견·차별과 관련된 연구도 몇몇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사회적 거리감에 접촉경험, 부모의 양육 태도, 교사 태도, 고정관념과 편견, 민족정체성,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 연령, 생활수준과 같은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경험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수자들과의 직접적 접촉 경험을 주장하고 있다(권경자, 2004; 박영주, 2001; 정범모, 1992). 가치관은 행동의 표준, 또는 지침, 선호의 기준, 평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개인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 바람직한 인간의 태도나 행동방향을 선택, 결정해주는 어떤 평가의 준거가 된다(박영주, 2001). 즉, 접촉경험은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고, 다시 이것은 사회적 거리감으로 반영되어 행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유아들에게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협력해야 하는 가를 배우게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하숙현, 2000). 또 최중호(2007)는 인간은 사회적

인 존재로 태어나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데, 그 중 가정환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접하는 환경으로 인간의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성연(2007)은 다문화적 양육태도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성, 문화, 민족, 사회계층, 장애 등 다양한 배경요인을 지닌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의미하며, 아동의 다문화적 태도와 의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언행, 행동, 태도 등을 통해서 습득된다고 하며 다문화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교사의 태도는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들의 가치관과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유옥선, 2008; 임정현, 2005; Derman-Sparks, 1989; 박영자 2001 재인용). 교사의 태도나 행동을 통해 아동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태도를 배우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시민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모경환, 2009).

다수 집단이나 주류는 그렇지 않은 소수 집단이나, 소수 집단의 개인에 대해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질 수 있다(김혜숙, 1999). 고정관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에 의해 상대와 어떻게 대인관계를 형성할지 결정하도록 한다. 또 편견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한 시켜 보았는데, 이 또한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처리를 편파적으로 만들고 대상에 대한 행동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혜숙, 2002). 보가더스(Bogardus, 1925)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대상 집단에 대해 보다 소원한 인간관계를 가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처럼 고정관념과 편견이 행동으로 반영되어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에 불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김혜숙, 2002 재인용). 이 외에도 이정희(1999), 이하령(2007), 남형주(2002) 등의 연구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이 차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민족정체성은 집합적 정체성에 해당하는데, 집합적 정체성이란 같은 집합체 안에서 하나의 집합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성원들 간의 공유된 인식과 성원들 자신의 집합체에 대한 공유된 소속감을 말하는 것이다(정호영, 2001). 한국사회의 민족 정체성은 혈통과 지리적 측면을 부각시킨 '단일민족의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국민교육의 핵심 가치의 하나로 강조되어 왔으며, 많은 한국인들의 말과 행동을 지배한다. '백의민족'이란 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조성하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집단 의지를 형성하여 왔다(김신일, 2009). 지금까지 다양한 민족이 혼재한 국가 보다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사회의 민족적 특성이 더 우월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아동들은 그러한 가치를 가지게 되며, 다양한 인종,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감정을 발달시킬 수 있다.

접촉경험, 부모 양육태도,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 고정관념과 편견, 민족 정체성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일반 아동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거리감 혹은 소수자에 대한 태도, 편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성별, 연령,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김수경(2002)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의 경우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는 연구들로는 이은주(1995), 이양섭(1995), 김영섭(1999) 등의 연구가 있다. 김혜숙(2006), 한세화(2008), 조현복(2009) 등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수용태도에 학년(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난영(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일반 청소년들의 고정관념과 사회적 거리감에 성별과 교 급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로는 정원식(1983)은 소속한 사회계층이 지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성격 형성 또는 자아개념, 흥미,

동기, 가치관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안규삼(1997)은 부모의 사회계층이 타문화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양미현(2000)은 아동의 편견에 가정환경의 지위가 상류층인가 중류층 또는 하류층인가는 유아의 편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하령(2007)은 감정적 차원의 편견 형성에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생활수준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두고, 행동적 요소를 측정하는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자녀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행동의사를 살펴보고, 부정적인 행동의사(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경우)가 접촉경험,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 고정관념과 편견, 민족정체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자녀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 수준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생활수준), 접촉경험(유·무),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 고정관념과 편견, 민족정체성이 각각 다문화 가정자녀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2) 조사대상

대구광역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아동수는 2007년 28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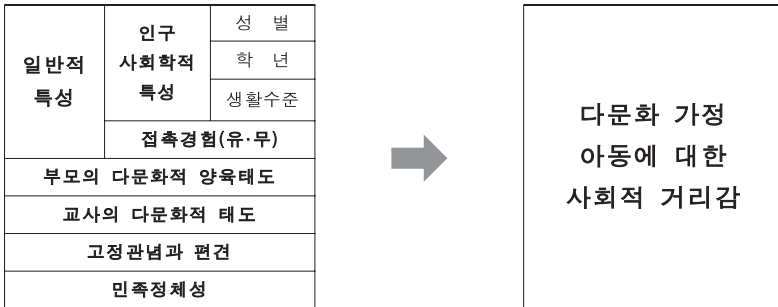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설계

에서 2009년 4월 현재 574명으로 2년 사이 2배 넘게 증가(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09)한 한편, 대구지역은 보수적이고 유교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타 지역보다 문화적 배타성이 클 것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대구지역의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관련 연구를 실시하여 사회적 거리감의 실태와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감 해소를 위한 개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내의 동부, 서부, 남부 세 학군의 189개의 초등학교 중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접촉경험 유·무를 변수로 삼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이 재학하고 있지 않은 52개의 학교를 제외한 137개 초등학교에서 학군별로 각 1개 교씩 무작위로 총 3개의 학교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각 학교별로 5학년 2학급, 6학년 2학급, 총 12학급을 임의 추출하여 총 35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생활수준의 주관적 인식에 관하여 각 1문항씩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접촉 경험

접촉 경험은 '다문화 가정아동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의 유·무'를 측정하는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는 하숙현(2000)의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를 문항 삭제, 용어의 수정을 통해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부모님은 성별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편이다', '부모님은 여러 나라, 인종이 함께 살고 있음을 알려 주신다', '부모님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 주신다' 등의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항상 그렇다'(5점), '자주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어쩌다 그렇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중 한 가지를 선택 하도록 하였다. 총점은 0점에서 5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적 양육태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0$ 으로 나타났다.

(4)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는 하숙현(2000)의 연구에서 활용한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를 측정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주어의 수정, 문항 삭제, 용어의 수정을 통해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선생님은 여러 나라, 인종이 함께 살고 있음을 알려 주신다', '선생님은 다양한 나라의 민속놀이, 게임 등을 알려주시고 체험해 보도록 하신다', '선생님은 성별이나 인종 등에 관하여 놀리는 행동을 못하도록 하신다' 등의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항상 그렇다'(5점), '자주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어쩌다 그렇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 총점은 0점에서 45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적 태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6$ 으로 나타났다.

(5) 민족정체성

민족정체성은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본 연구에 부적합한 문항을 삭제하거나 용어의 수정을 통해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자격의 중요성을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한국인인 것',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것',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아는 것', '한국의 제도와 법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5항목에 대하여 각각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2점), '꽤 중요하다'(3점), '매우 중요하다(4점)' 중 한 가지를 선택 하도록 하였다. 총점은 0점에서 2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민족정체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8$ 로 나타났다.

(6) 고정관념 및 편견

고정관념은 김정호(1990), 김효선(2003)이 Siperstein(1980)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적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하는 만큼 특징적인 형용사를 택하는 것으로 아동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다른 동료에 대하여 서술하는 감정(affection), 신체적 외모(appearance), 학습 행동(academic behavior),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을 묘사하는 32가지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형용사와 부정적 형용사가 반반씩 포함되어 있다(김다영, 2008).

채점 방식은 일반아동이 다문화 가정 자녀에 관하여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를 개수에 상관없이 선택하도록 한 후, 기본 점수 20점에서 긍정적 형용사는 1점을 더하고, 부정적 형용사는 1점을 감하여 총 점수를 낸다(김다영, 2008).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7$ 로 나타났다.

(7)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태도의 행동적 측면에 행동 의도와 외현적 행동이 있다고 전제하고 외현적 행동을 가장 잘 예언한다고 지적되어 온 행동 의도를 측정하고자 제작된 도구로서,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에서 초등학교 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 ‘나는 장애를 가진 친구와 이렇게 지내고 싶다: 비장애학생용’을 토대로 김다영(2008)이 수정 보완한 것을 다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약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함께 생활하게 된다면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학교생활, 개인생활, 취미오락생활 세 개의 하위 내용으로 분류하고 각 하위 내용별로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이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아동)그 친구와

표 3. 조사도구의 구성과 신뢰도

변인	요인(하위변인)	출처	문항 수	신뢰도	
독립 변인	일반적 특성	성별	남(1), 여(2)	1	-
		학년	5학년(1), 6학년(2)	1	-
		생활수준	하(1), 중(2), 상(3)	1	-
	접촉경험	유(1), 무(2)	1	-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하숙현(2000) 척도의 수정·재구성	10	.870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	하숙현(2000) 척도의 수정·재구성	9	.846	
	민족정체성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2007) 척도의 수정·재구성	5	.818	
고정관념과 편견	Siperstein(1980)의 척도를 번안한 김정호(1990), 김효선(2003) 척도	32	.877		
종속 변인	사회적 거리감	국립특수교육원의 ‘나는 장애를 가진 친구와 이렇게 지내고 싶다: 비장애학생용’을 토대로 김다영(2008)이 수정 보완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재구성	30	.973	

함께 학교를 오고 가는 것', '내 생일날 그 친구를 초대하는 것', '그 친구와 운동경기에서 같은 편이 되는 것'과 같은 항목들에 대하여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는 정도를 '매우 좋다(1점)', '좋다(2점)', '그저 그렇다(3점)', '싫다(4점)', '매우 싫다(5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총점은 0점에서 15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73$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척도에 대한 요약은 표 3과 같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9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대구광역시 내의 일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내용, 언어 및 어구구성, 반응형식, 문항배열과 같은 오류를 찾고, 응답자가 질문지에 응답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조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설문을 재구성하였다.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대구광역시 내 일반 초등학교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재학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중 무작위로 선택된 세 학교의 교감선생님, 교무부장선생님, 담임선생님께 전화연락을 통해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양해를 얻어 설문을 실시 할 학급과 배포할 설문 수를 정하고 조사 가능한 날짜를 협의 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연구자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여 회수하거나, 담임선생님들께 설문조사 안내문을 전달하여 담임선생님들이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하도록 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357부였으나 대상자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성실한 35부를 제외한 32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친 후, SPSS for Window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Chronbach's α 를 통한 신뢰도 검증, 기술 통계, 독립표본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4.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들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일반 아동들의 일반적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접촉경험으로 구분하여 빈도 분석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N	%	
일반적 특성	성별	남	177	55.0	
		여	145	45.0	
		계	322	100	
	인구사회 학적 특성	학년	5학년	169	52.5
			6학년	153	47.5
		계	322	100	
	생활수준	상	122	37.9	
		중	162	50.3	
		하	38	11.8	
		계	322	100	
접촉경험	유	185	57.5		
	무	137	42.5		
	계	322	100		

조사대상 아동들의 성별 분포의 경우, 남학생이 55.5%(177명), 여학생이 45.0%(145명)로 나타났으며, 학년의 분포는 5학년이 52.5%(169명), 6학년이 47.5%(153명)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중’인 경우가 50.3%(16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 37.9%(122명), ‘하’ 11.8%(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아동들의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접촉경험 유·무를 보면,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 57.5%(185명), 없는 경우 42.5%(137명)로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독립변수로 설정한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 고정관념과 편견, 민족정체성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5와 같다.

조사대상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M=2.65(SD=1.272)$,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는 5점 척도에서 $M=2.75(SD=1.154)$ 로 나타나 부모와 교사 두 집단 모두 다문화적 태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총점 평균이 $M=22.62(SD=6.694)$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정체성의 경우 4점 척도에서 $M=3.15(SD=0.917)$ 로 나타나 조사대상아동들은 중간 수준 이상의 경직된 민족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주요변수들의 특성

(n=322)

변수		평균평점(M)	표준편차(SD)
독립변수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2.65 (5점 척도)	1.272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	2.75 (5점 척도)	1.154
	고정관념과 편견	22.62 (총점)	6.694
	민족정체성	3.15 (4점 척도)	0.917
종속변수	사회적 거리감	2.57 (5점 척도)	1.107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감은 5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M=2.57(SD=1.107)$ 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변수들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개인 간 격차가 크음을 알 수 있다.

3) 이원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조사대상자인 일반 아동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학년, 생활수준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의 평균값을 보면, 남학생($M=22.27, SD=6.459$)인 경우가 여학생($M=23.04, SD=6.968$)인 경우 보다 고정관념과 편견 점수가 낮게 나타나 실제 고정관념과 편견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1.027, p=.305$).

학년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의 평균값을 보면, 6학년($M=22.08, SD=7.254$)이 5학년($M=23.11, SD=6.123$) 보다 고정관념과 편견 점수가 더 낮게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구분	내용	N	M	SD	df	t/F	p
성별	남	177	22.27	6.459	320	-1.027	.305
	여	145	23.04	6.968			
학년 (연령)	5학년(11세)	169	23.11	6.123	298.825	1.367	.173
	6학년(12세)	153	22.08	7.254			
생활 수준	상	122	22.80	6.690	2	.691	.502
	중	162	22.69	6.662			
	하	38	21.45	6.896			

나타나 실제 고정관념과 편견은 6학년이 5학년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년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367, p=.173$).

생활수준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의 평균값을 보면, 하($M=21.45, SD=6.896$)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M=22.69, SD=27.916$), 상($M=22.80, SD=6.690$)의 순으로 낮게 나타나 실제 고정관념과 편견은 하, 중, 상의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활수준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F=.691, p=.502$).

(2)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조사대상자인 일반 아동들의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구분	내용	N	M	SD	df	t	p
접촉경험	유	185	23.28	6.614	320	2.076	.039
	무	137	21.72	6.720			

접촉경험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의 평균값을 보면, 경험이 없는 경우($M=21.72, SD=6.720$)가 경험이 있는 경우($M=23.28, SD=6.614$) 보다 고정관념과 편견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나 실제 고정관념과 편견은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없는 경우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접촉경험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t=2.076, p=.039$).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민족정체성

조사대상자인 일반 아동들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인 성별, 학년, 생활수준에 따른 민족정체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민족정체성

구분	내용	N	M	SD	df	t/F	p
성별	남	177	16.05	3.774	319,907	1,744	.082
	여	145	15.37	3.143			
학년 (연령)	5학년(11세)	169	15.39	3.651	320	-1.927	.055
	6학년(12세)	153	16.14	3.325			
생활 수준	상	122	15.50	3.723	2	.508	.602
	중	162	15.93	3.465			
	하	38	15.74	3.046			

성별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평균값을 보면, 남학생(M=16.05, SD=3.774)인 경우가 여학생(M=15.37, SD=3.143)인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좀 더 경직된 민족정체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744, p=.082).

학년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평균값을 보면, 6학년(M=16.14, SD=3.325)이 5학년(M=15.39, SD=3.651) 보다 높게 나타나 5학년 보다 6학년이 좀 더 경직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년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t=-1.927, p=.055),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p=.05라는 기준 값에 거의 근사한 유의 수준(p=.055)으로 학년에 따른 민족정체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생활수준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의 평균값을 보면, 중(M=15.93, SD=3.46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하(M=15.74, SD=3.046), 상(M=15.50, SD=3.72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중, 하, 상의 순으로 경직된 민족정체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수준에 따른 민족정체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F=.508, p=.602).

(4)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민족정체성

조사대상자인 일반 아동들의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민족정체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접촉경험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평균값을 보면, 경험이 없는 경우($M=16.48$, $SD=3.321$)가 경험이 있는 경우($M=15.20$, $SD=3.563$)보다 높게 나타나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의 민족정체성이 더 경직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촉경험에 따른 민족정체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t=-3.300$, $p=.001$).

표 9.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민족정체성

구분	내용	N	M	SD	df	t	p
접촉경험	유	185	15.20	3.563	320	-3.300	.001
	무	137	16.48	3.321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조사대상자인 일반 아동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학년, 생활수준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값을 보면, 남학생($M=78.95$, $SD=23.836$)인 경우가 여학생($M=74.99$, $SD=26.175$)인 경우 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t=1.418$, $p=.157$).

학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값을 보면, 6학년($M=80.11$, $SD=27.137$)이 5학년($M=74.50$, $SD=22.551$) 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t=-2.005$, $p=.046$).

생활수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값을 보면, 중($M=78.15$, $SD=25.237$)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하($M=76.86$, $SD=$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구분	내용	N	M	SD	df	t/F	p
성별	남	177	78.95	23.836	320	1.418	.157
	여	145	74.99	26.175			
학년 (연령)	5학년(11세)	169	74.50	22.551	296.580	-2.005	.046
	6학년(12세)	153	80.11	27.137			
생활 수준	상	122	75.97	23.739	2	.267	.766
	중	162	78.15	25.237			
	하	38	76.86	27.916			

27.916), 상(M=75.97, SD=23.73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수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F=.267, p=.766). 즉, 일반 아동들의 학년이 낮은 경우 보다 높은 경우에 사회적 거리감이 높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조사대상자인 일반 아동들의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접촉경험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값을 보면, 경험이 없는 경우 (M= 84.19, SD=25.880)가 경험이 있는 경우(M=71.97, SD=22.966) 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촉경험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t=-4.473, p=.000).

표 11.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구분	내용	N	M	SD	df	t	p
접촉경험	유	185	71.97	22.966	320	-4.473	.000
	무	137	84.19	25.880			

(7) 사회적 거리감 영향 요인과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관관계

사회적 거리감 영향 요인인 고정관념과 편견, 다문화적 교사태도,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민족정체성과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사회적 거리감 영향 요인과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관관계 (n=322)

	고정관념과 편견	다문화적 교사태도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민족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고정관념과 편견					
다문화적 교사태도	.200(***)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159(**)	.624(***)			
민족정체성	-.025	.008	.044		
사회적 거리감	-.632(***)	-.270(***)	-.196(***)	.065	

*p<.05, **p<.01, ***p<.001

사회적 거리감 영향 요인인 고정관념과 편견, 다문화적 교사태도,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민족정체성 중 민족정체성($r=.065, p=.247$)을 제외한 고정관념과 편견($r=-.632, p=.000$), 다문화적 교사태도($r=-.270, p=.000$),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r=-.196, p=.000$)가 사회적 거리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고정관념과 편견, 다문화적 교사태도,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는 사회적 거리감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정관념과 편견이 많을수록, 교사와 부모가 다문화적 태도를 적게 가질수록 사회적 거리감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접촉경험, 고정관념과 편견,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 태도, 다문화적 교사태도, 민족정체성이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여부를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IF)를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n=322)

모형	B	SE B	β	t	p	tolerance limit	VIF
(상수)	134.974	7.360		18.340	.000		
성별	-.693	2.172	-.014	-.319	.750	.933	1.072
학년	4.458	2.160	.089	2.064	.040	.937	1.067
생활수준 상	3.631	3.564	.071	1.019	.309	.365	2.743
생활수준 중	3.555	3.416	.071	1.041	.299	.374	2.676
접촉경험	-8.414	2.338	-.167	-3.599	.000	.816	1.226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071	.164	.025	.430	.668	.539	1.857
다문화적 교사태도	-.460	.197	-.128	-2.330	.020	.578	1.730
고정관념과 편견	-2.184	.161	-.586	-13.573	.000	.943	1.060
민족정체성	.061	.309	.009	.196	.845	.926	1.080
adjusted R ²	F		p		Durbin-watson		
.436	28.605		.000		1.947		

주: • 생활수준 '하'가 기준집단. • 접촉경험 유·무(유=1, 무=0)
 • 고정관념과 편견은 점수가 낮을수록 고정관념과 편견이 많은 것이다.
 • 사회적 거리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많은 것이다.

먼저,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IF)를 보면, 황성동(2006)이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변수에서 공차한계가 .10보다 크며, 분산팽창요인(VIF)계수가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은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43.6%(adjusted R²=.43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28.605, p=.000).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학년($\beta=.089$, P=.040)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접촉경험($\beta=-.167$, P=.000), 다문화적 교사태도($\beta=-.128$, P=.020), 고정관념과 편견($\beta=-.586$, P=.000)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민족정체성, 성별, 생활수준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05).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고정관념과 편견이 영향력 계수(β)가 $-.586$ 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거리감과 부적(-)관계로 고정관념과 편견이 적을수록 사회적 거리감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고정관념과 편견 다음으로 접촉경험($\beta=-.167$), 다문화적 교사태도($\beta=-.128$), 학년($\beta=.089$) 순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촉경험과 다문화적 교사태도는 사회적 거리감과 부적(-)관계로 접촉경험이 있을수록, 교사가 다문화적 태도를 보일수록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학년은 사회적 거리감과 정적(+)관계로 학년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감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오늘날 한국사회는 인구사회학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 되면서 그들의 자녀 수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부적응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최근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자녀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자녀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부적응이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만 밝히고 있을 뿐 정작 부적응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아동들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영향의 정도를 확인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개입 전략을 마련하고, 다문화 가정아동들이 일반아동들과 함께 어울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아동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 수준은 중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다문화 가정아동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 수준은 개인 간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즉,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적 거리감 수준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둘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고정관념과 편견이 사회적 거리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관념과 편견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청소년들의 다문화 가정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고정관념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유난영(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김혜숙(2002)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대인관계에서 편파와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고정관념과 편견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대상 집단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꺼리게 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과도 부합한다(Bogardus, 1925, 김혜숙 2002 재인용;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또 인지적 편견과 감정적 편견이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감정적 편견이 사회적 거리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하령(2008)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셋째, 고정관념과 편견 다음으로 접촉경험이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접촉경험이 있을수록 사회적 거리감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경자(2004)는 학교 내 장애인과 접촉경험은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최은자(2002)는 접촉경험의 유·무에 따라 특수학급 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접촉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있는 아동의 경우 수용태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경숙 등(2007)의 연구에서도 또래 혼혈인/외국인과의 접촉경험이 없는 학생일수록 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혼혈인과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에 관하여 찬성하는 비율은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여 접촉경험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고아라(2005)에 따르면 아동의 직접·간접 접촉경험은 인종 편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동남아인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 높은 편견 수준을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같이 사회적 거리감에 접촉경험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송영호(2009)의 연구에서도 외국인과의 교류 경험이 다문화 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교류 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접촉경험이 다양성을 수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넷째,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는 일반 아동들이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교사가 다문화적 태도를 보일수록 사회적 거리감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아(2000)의 연구에서 학급내의 교사가 자율적이고 친교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아동간의 괴롭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혜선(2008)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 지도성이 효율적이고 인화 중심적일 수록 또래 괴롭힘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태도가 아동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두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윤혜경(1991)은 장애 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시청각적으로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으로 주어질 때, 일반 아동의 수용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교사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일반 아동의 수용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중환(2008)은 교사의 태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중학생들의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비록 대상 집단과 연령대는 다르지만 교사의 태도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에서 제시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 학년은 교사태도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학년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다문화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송영호(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수용태도를 조사한 윤혜경(1991), 한세화(2008), 조현복(2009)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학년이 낮을수록 수용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성별은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이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심순남(2005), 유난영(2008)의 연구 결과와 불일치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불일치는 심순남(2005), 유난영(2008)의 연구 대상은 중·고교생, 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생과 연령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정관념, 개방성의 차이는 다양한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사회화의 한 결과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사회와 같이 사회적으로 성역할,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구분이 뚜렷한 사회 안에서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개방성의 차이는 더욱 사회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짐작 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생들은 성별에 따른 어떠한 차이를 가질 만큼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연령이기 때문에 중·고교생,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해소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아동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수준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개인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보아 일반 아동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긍정적 수준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사회적 거리감 수준이 높은 아동의 수가 많지 않다고 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다문화가정 아동이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단 한번이라도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는 그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학교라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적·사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일반 아동들의 차별적인 태도와 행위로 인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또한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서비스 전달 체계로 학교사회복지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고정관념과 편견이 일반 아동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고정관념과 편견의 형성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어떠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정관념과 편견에 반하는 사례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나, 캠페인 활동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다문화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고정관념·편견 해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모든 아동들이 쉽게 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각 어린이·청소년 단체들과 연계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즉, 고정관념과 편견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혹은 연구자, 교육기관 및 서비스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모두가 협력 해야만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다문화가정 아동과의 접촉경험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 번이라도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의 유·무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 더 많은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일반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저절로 해결 되는 문제로 자칫 오인 할 수 있다. 물론, 수가 증가한다면 접촉 빈도가 높아져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도출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는 다문화 가정 아동을 향한 편견, 고정관념이 존재하며, 다문화 가정 아동은 수적으로 일반 아동에 비해 적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 수가 증가하여 자연스러운 접촉이 가능하게 될 시점이 언제인지 장담할 수 없으며, 설령 그 시점을 보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을 그 때까지 방치 해 둘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은 의의가 있다. 최근 유럽에서 일어난 극우파들의 테러 사건들을 보다시피 고정관념과 편견 대상 집단의 수적 증가는 지금처럼 수적 열세일 때와 달리 더 경계하고 배척해야 하는 위협적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다 급격한 수적 증가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은 확인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접촉경험은 또래 학급 동료들과의 이야기 경험으로 대화 상대가 동등한 지위를 가졌으며, 대부분의 대화 소재가 부정적이거나 이해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의 생활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대화일 가능성이 높다. 즉, 단순히 수적 증가가 인식변화를 줄 수 있는 접촉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환경을 배경으로 접촉 경험을 할 때,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아동 복지 관련 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캠프, 봉사조직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공통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의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질감을 줄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하고 그러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일상적 대화보다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

접촉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다.

넷째,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의 다문화적 태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사 준비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증가 등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교육과 다문화 사회의 바람직한 교사 태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교사들의 다문화적 태도가 일반 아동들이 다문화아동들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려 책임감을 높임으로써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고취시키며, 다문화적 교수 태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다문화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중심 자리에 있는 복지기관은 대상자를 위한 일차적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에서 서비스 대상자들이 관계하는 사람들과 자원, 사회, 문화에서 변화를 이끄는 역할로 나아가 다문화 복지관련 기관 실무자들의 경험, 다문화 관련 교육·복지 분야 학자들의 전문지식을 발굴하고 자료화 하며,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을 통하여 교육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앞장 서야 한다.

다섯째,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년이 높을수록 부정적 태도와 높은 사회적 거리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회 경험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팽배한 타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배타성, 편견 등의 사회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폐쇄적인 사고와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사회화하기 이전에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다문화 서비스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아동들에게도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수, 국적, 연령별 분포, 그들의 지역사회 내 활동 등 지역 사회의 이주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연령대에 맞는 교육 방법으로 제공하여 이주민과 그들의 자녀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시키며, 지역사회의 환경을 조성할 때에도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국

가적 배경을 길거리 장식, 공공기관의 시설물 등에 반영하여 조화롭게 구성함으로써 아동들로 하여금 그들이 성장하는 지역사회 환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현 사회가 다문화사회임을 인식하도록 돕고, 다문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사회적 거리감이나 차별,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질적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세워야 하며, 사회적 거리감, 차별, 편견 해소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하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비교 해 봄으로써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1년 11월 11일 접수, 05월 01일 수정, 05월 02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고아라, 2005, 수도권 초등학교의 인종편견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유미, 2008,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국인 어머니 가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08, 다문화 가정 초·중·고 재학생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계획.
- 권경자, 2004, 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이 중학생의 통합교육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다영, 2008, 영상자료 활용 장애이해교육이 일반 아동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경, 2002, 초등학교 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비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연, 2007, 아동이 지각한 가정 및 학급환경 변인에 따른 장애아 수용태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신일, 2009, 세계화 시대 다문화교육의 쟁점과 과제,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5월 9일,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17-23.
- 김영섭, 1999, 통합교육에 따른 일반학급 학생의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 2000, 아동간의 또래 괴롭힘과 학급 풍토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효, 1990,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일반 동료들의 수용태도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1999, 집단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33.
- 김혜숙, 2002, 고정관념 및 편견과 인간관계, 사회과학 연구논총, (9), 83-100.
- 김혜숙, 2006, 통합학급 일반 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 분석, 가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 2003, 통합적 장애인식 개선프로그램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형주, 2002,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관한 비교 연구: 정신보건시설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경환, 2009, 다문화 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효능감 및 교육 실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미·정기선·김혜숙·박건, 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자, 2001,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의 반편견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주, 2001, 일반 아동의 접촉경험과 대인 가치관이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중환, 2008, 장애인에 대한 중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법무부, 2008,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발표.
- 서혜선, 2008,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의 지도성 유형 및 학급풍토에 따른 또래 괴롭힘의 차이,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편.
- 송관재·이재창·홍영오, 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119-136.

- 송영호, 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호선, 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순남, 2005,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사회적 거리감,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규삼, 1997, 가족환경 요인이 타 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별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미현, 2000, 유아가 인식하는 편견의 영역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순미,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 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59-576.
- 원희목, 2008, 다문화 가정 자녀 70%, 고등학교 안다녀,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23, 255-262.
- 유난영, 2008,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김포시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옥선, 2008, 다문화교육에 대한 어린이집교사의 신념 및 실제 조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경, 1991, 장애 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일반 아동의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청각 자료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혜미·김혜래·신영화, 2005,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 이양섭, 1995,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일반학급 학생의 태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7,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1995,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일반학급 학생의 태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1999, 반편견 교육활동이 유아의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 완화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령, 2007, 인종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연구: 고정관념, 감정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정현, 2005, 반편견(anti_bias) 교육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정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협·오정수, 2003,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경숙·정기선·이지혜, 2007,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 교육청.
- 정범모, 1992,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 정원식, 1983,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조현복, 2009, 초등학교 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호영, 2001, 민족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달, 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최은자, 2002, 일반학급학생의 통합교육 경험이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호, 2007, 초등학생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숙현, 2000,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양육실태 연구조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세화, 2008, 장애학생에 대한 초등학교 비장애학생의 수용태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다문화 가정청소년 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혼혈청소년도 당당한 한국인입니다, 다문화 가정청소년 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자료집.
- 홍정미, 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The Factors Affecting Ordinary Children's Sense of Social Distance from Those in Multi-Cultural Family

Ji-Min Hwang*

Abstract_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rdinary children's sense of social distance from those in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sense of social distance, and, based on the findings, prepare th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social work practice to reduce the sense of social distance. It was identified that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sense of social distance were school year, stereotypes and prejudices, the experience of contact, and teacher's multi-cultural attitudes; and gender, living standards, parent's multicultural attitude for nurturing and ethnic identity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sense of social distance. In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as above,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ducing ordinary children's sense of social distance from those in multi-cultural family are suggested.

Keywords_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sense of social distance, factors affecting the sense of social distance

*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in Daegu University, Socail Welfare, tribute2127@nate.com